

The historical study on the Ukrainian territorial conflicts: Focusing on the Crimean War and the German–Soviet War

Eunchae Lee* · Ikhyun J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delves into the geopolitical tensions surrounding Ukraine throughout modern European history, aiming to shed light on its significance in geopolitical discourse. Since the 19th century, European powers, particularly the Anglo-Saxons and Germans, have formulated distinct geopolitical strategies concerning the Eurasian continent, with Ukraine at its focal point. The Crimean War and the German-Soviet War serve as key events to analyze these powers' geopolitical ambitions and interests. The British Empire, driven by its doctrine of thwarting land powers with sea power, intervened in the Crimean War against Russia. Its objective was to disrupt Russian dominance over Ukraine, thereby hindering Russian expansion into the Black Sea and Central Europe. On the other hand, the Third Reich of Germany, fixated on creating a European sphere exclusive from Anglo-Saxon sea powers and the Russian land power, initiated the German-Soviet War. This move aimed to secure a vast territory, including Ukraine, to facilitate expansion into the Caucasus and establish a buffer zone against the Soviet Union.

Three key insights emerge from this analysis. Firstly, the absence of a dominant power rooted in Ukraine since the fall of the Principality of Kiev made geopolitical clashes inevitable. Secondly, these clashes ultimately result in a hollow victory for all involved parties, signifying the high costs and minimal gains of such confrontations. Lastly, the root cause of these clashes lies in the discord between exclusive geopolitical visions that

* First Author. email: eunchae628@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kking79@hs.ac.kr

fail to accommodate sustainable coexistence among diverse geopolitical spheres. In essence, the study underscores Ukraine's pivotal role in shaping European geopolitics and highlights the recurring clashes driven by competing visions of dominance and control over its territory. From the Crimean War to the German-Soviet War, the struggle for influence over Ukraine reflects broader geopolitical dynamics and the pursuit of strategic advantage by major powers. Ultimately, the study emphasizes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Ukraine in European geopolitics and the complexities inherent in managing its geopolitical tensions.

Keywords

Ukrainian space, Crimean War, German-Soviet War, Geopolitics, Clash.

우크라이나 영토분쟁에 관한 사(史)적 연구: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채* · 장익현**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열강 간 오랜 지정학적 충돌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유럽사 속에서 드러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이를 두고 벌어진 근대 유럽열강 간 패권분쟁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9세기 이래, 영미(英美)와 독일은 이와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대(對) 유라시아 지정학적 관점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양측이 일으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은 이들의 지정학적 전략과 이익실현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영제국의 경우 크림전쟁개입을 통해 제정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완전한 장악을 저지하였다. 이를 통해 대영제국은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남하와 중부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봉쇄하였다. 다음으로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륙세력과 영미해양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는 배타적 공간질서를 건설해야한다는 지정학 전략을 수용한 독일 제3제국은, 중동부유럽의 레벤스raum(Lebensraum) 확보와 확장을 위해 독소전쟁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카프카스 지역진출을 시도하고 소련과의 완충지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양(兩)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3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분쟁은 키예프 공국 패망 이래 해당공간을 토대로 한 강력한 국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은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큰 피로스의 승리와 같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분쟁의 근본원인은 상호공존과 균형을 경시하는 배타적 지정학관 간 충돌이다.

주제어

우크라이나 공간, 크림전쟁, 독소전쟁, 지정학, 충돌

* 1저자, 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unchae628@daum.net

** 교신저자,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skking79@hs.ac.kr

I. 서론

지난 2014년 크림반도합병사태와 2022년 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내 지정학적 갈등이 새로이 부각 되었다. 사실 탈(脫) 냉전 이래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중동 및 아프리카의 분쟁에 비해 유럽의 강대국간 지정학적 충돌이 오랫동안 국제사회와 일반 대중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20세기 중반 이후 꾸준히 전개된 유럽통합으로 인해, 19세기와 20세기 전반까지 나타났던 유럽 강대국 간 패권 및 지정학적 갈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은 명백하다. 실제로, 오늘날 유럽의 지도를 독일-오스트리아를 가로지르는 중선을 통해 두 권역으로 크게 나누면, 서부 유럽의 지정학적 분쟁은 사실상 영구 종결상태라고 볼 만큼 상당히 안정되었다. 예를 들어 알자스-로렌을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 간 오랜 영토분쟁은 1963년 양국 간 화해조약¹⁾을 계기로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부 유럽은 발칸반도와 우크라이나라는 지정학적 불안요소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는 1차 대전의 뇌관에 불을 붙인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 드러나듯이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의 화약고이며, 후자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합병사태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대표되는 동유럽의 분쟁지역이다. 그러나 상기한 동부 유럽의 양 지정학적 불안요소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유고슬라비아 내전(1991-2001) 이후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받아 안정되어가는 발칸반도의 정세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정세의 경우는 나토(NATO)로 대표되는 서방세계와 이에 대항하는 러시아 간 첨예한 이해관계충돌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유럽열강 간 충돌은 현 세기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전개가 아닌 최소 2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 분쟁은 발칸반도 분쟁보다 더욱 뿌리 깊은 역사유산에 바탕을 두

1)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과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간 체결된 ‘엘리제 조약’(Traité de l'Élysée)을 의미.

고 있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역사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자한다. 국제정치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추론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을 관찰함으로써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공간과 관련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충돌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세기 중반에 대영제국과 제정 러시아 간 충돌한 크림전쟁(1853-56)과 20세기 전반에 독일 제3제국(Das Dritte Reich)과 소련이 충돌한 독소전쟁(1941-45)라고 볼 수 있다. 양 전쟁은 기본적으로 근대 유럽 국제관계에서 당시 유럽의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을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다. 이와 동시에 양 전쟁은 기본적으로 근대 유럽열강의 제국주의 간 충돌의 산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동시에 양 전쟁은 고도의 지정학적 이익충돌로 야기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전쟁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공간이 갖는 지정학적 상징성과 역사적 유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기존의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법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법,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접근법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Singer & Small, 1972).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법은 전쟁은 인간이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한 행위자의 특성에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전쟁의 원인은 개인의 속성에 의존하며 특정 개인의 존재가 곧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차원에 대한 접근법은 사회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자본주의, 민족주의 등 사회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체제차원에서의 접근법은 국가 내적인 요소보다는 국가간의 힘의 분포, 즉 세력균형, 동맹관계 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편, 월츠의 경우는 인간 측면, 국가 내부 측면, 국제관계의 구조적 측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Waltz, 2018) 인간 측면은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국가 내부 측면의 내용은 소위 나쁜 국가 (전제 국가 혹은 독재 국가 등)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말 월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반박한다. 인간 측면에서는 인간은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둘 다 할 수 있기에 인간을 사회문제로 본다면 설명력은 높겠지만 현실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내부 측면 설명의 경우 모든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제이기 때문에 처방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국제관계의 구조적 접근인데, 이 관점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인데 각 국가들은 협력의 강화보다는 배신을 당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따라서 세력균형이 전쟁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것이다. 전쟁의 원인은 결국 세력균형의 붕괴라는 점이다.

본 연구도 결국 국제관계의 구조론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지도자의 개인적 측면이나 국가의 시스템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국제관계의 구조하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 중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요인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크림전쟁과 독일-소련전쟁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쟁당사 지역인 유럽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알랭 구트망(Alain Gouttman, 2006)과 니콜라 베르나르(Bernard, 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자와 후자는 각각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의 배경에서 결말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특히 고전적 국제정치학이 중시하는 힘의 균형의 창출과 유지라는 관점에서 양 전쟁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양 연구는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을 주로 유럽 패권국 간 외교 및 군사 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양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요소와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이 중시하는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가치를 완벽히 분석하지 못했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학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림전쟁과 관련한 이정하의 연구(2016)와 독소전쟁과 관련한 백철

현(2018)과 남도현(202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이정하의 연구는 크림전쟁이 끼친 제정 러시아의 대외정책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으로 백철현과 남도현의 연구는 독소전쟁을 파시즘과 공산주의 간 이념충돌과 군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도 공통적으로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술한 기존선행연구가 경시한 지정학적 관점에 집중하여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지정학적 의미로서의 우크라이나 공간의 중요성을 19세기부터 발전된 영미(英美) 지정학과 독일 지정학,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 관점을 통해 탐구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크림전쟁을 19세기부터 발전된 영국의 해양 중심적 대(對) 유럽 및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이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독일-소련전쟁을 마찬가지로 19세기부터 발전된 독일의 대륙 중심적 대(對) 유럽 및 유라시아 지정학 관점과 이익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양 전쟁의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충돌성과 관련한 역사적 교훈을 제시한다.

II.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

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가 중첩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대 슬라브어로 우크라이나가 경계라는 의미를 갖는 것(Lebedynsky, 2019, p19)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공간은 튀르키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 대륙 간 문명 혹은 세력충돌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갖는다. 실제로 고대 이래 해당공간은 아시아 대륙에서 기원한 스키타이(Scythia), 훈족(Huns), 아바르족(Avars), 마자르족(Magyars) 등의 다양한 유목제국의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역으로 유럽세력이 아시아 대륙으로 급속히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7세기부터 본격화된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진출을 들 수 있다. 특히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전쟁 종료 이후 서유럽 세력이 제정 러시아를 견

제하는 시점부터, 유럽은 우크라이나 공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당시 서구열강 중에서도 영미와 독일이 해당 공간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으며, 양측은 고유의 세계관과 국익추구의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공간과 관련한 독특한 지정학 이론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1. 영미 지정학 속 우크라이나 공간

먼저 영국과 미국은 세계패권 장악과 관련하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립의 관점에서 대 유라시아 지정학을 발전시켰다.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자신들을 해양세력으로 간주하고, 해양세력의 우월성의 관점에서 유라시아 대륙세력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을 전략적 기조로 삼았다. 이러한 해양세력의 우월성은 해양세력이 세계질서안정에 덜 위협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Kaplan, 2017, p.169). 해양세력의 우월성에 토대를 둔 유라시아 지정학관은 영국의 지정학자 험포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Heartland’ 이론²⁾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6개 대륙은 각각 거대한 섬이다. 매킨더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유라시아 대륙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다. 이에 더 나아가 매킨더는 이 거대한 대륙의 중심부(Heartland)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공간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거대한 지역임과 동시에 세계패권향방을 좌우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매킨더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았다(Encel, 2009, p.48). 영국과 미국은 이러한 매킨더의 이론을 수용하였으나, 해당지역과 지리적 및 역사적 연관성이 전무하다는 큰 문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이 해당지역을 직접 점령 및 지배하는 것 대신에, 기타 세력이 유라시아 중심부를 장악하는 것을 사전 봉쇄하는 전략을 고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해당 지역 장악에 근접한 유라시아 대륙세력의 팽창을 봉쇄해야 한다는 전략적 기조를 설정하였다. 우선 영국과 미국은 매킨더가 가장 두려워하고 예방하고 싶었던 독일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양 대륙세력 간 동맹 혹은 연계전략실현(Flint & Taylor, 2018, p.4)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영미의 유라시아 대륙봉쇄정책은 지리적으로 중

2) 흔히 심장부 이론으로 번역됨.

양아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간에 인접한 강대국인 러시아를 집중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공간은 더 큰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2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대양(大洋)과 고립된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 스텝과 달리 우크라이나 공간은 흑해와 맞닿아 있는 관계로 해양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 해당세력은 흑해를 넘어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얻게 된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해양패권을 잠재적으로 위협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세력의 팽창봉쇄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간지배는 일차적으로 해당세력의 중부유럽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물론, 러시아의 중부 유럽 진출이 영미세력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대륙을 완충지대로 바라보는 영미 대 유럽관을 미루어 볼 때, 러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대륙세력의 유럽중심부진출은 영미해양세력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 카를 5세의 합스부르크 제국과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1제국이 중부 유럽일대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나타난 영국의 거부반응과 안보불안감 증대³⁾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독일 지정학 속 우크라이나 공간

다음으로 대륙세력인 독일은 영미와 달리 대륙세력우위의 관점에서 대 유라시아 지정학관을 발전시켰다. 영미 지정학과 다른 점은 독일이 기존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대립구도설정(Encel, 2009, p.41) 외에도 육지로 맞닿아 있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세력 간 대치구도를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구별되는 문명 및 지정학적 세계로서 양자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술한 양 대륙 간 중심부이자 중첩지대인 우크라이나 공간은 독일의 지정학에서 중대한 위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지정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의 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첼에 따르면 독일 민족의

3) 나폴레옹 1세가 아우스터리츠 전투(1805)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 영국 총리인 윌리엄 피트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거대한 공간 확보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부유럽에 토대를 둔 독일은 거대한 동부유럽지역을 독일민족국가를 위한 ‘레벤스raum’(Lebensraum)⁴⁾으로 인식하고 해당공간의 장악을 독일의 번영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판단한다(Encel, 2009, pp.37-38). 독일의 서계와 남계는 각각 라인강과 알프스 산맥이라는 명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북계는 북해와 발트해로 막혀있다. 그러므로 라첼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평야로 구성된 동부유럽을 겨냥한 레벤스raum의 확장이 유일한 선택지이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동부유럽을 포괄하는 광대한 레벤스raum의 확보는 자연스럽게 유럽의 지정학적 동계확장에 기여한다. 즉, 레벤스raum의 동진은 유럽의 대 러시아 접경지대의 동진을 의미한다. 우랄산맥을 유럽의 지리적 동계로 볼 때, 이 거대한 레벤스raum의 중심부는 우크라이나 공간이다. 또한 독일의 우크라이나 공간진출은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의 장악한다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간진출은 카프카스 지역까지 지정학적 영향력 혹은 영향권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공간장악은 러시아 혹은 기타 아시아 세력의 유럽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와 전초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세기 현(現) 헝가리의 전신인 마자르족이 우크라이나 공간을 지나 중부유럽평원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 현 독일의 전신인 신성로마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역사적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3세기 몽골제국이 키예프 공국을 멸하고 중동부유럽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던 사례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공간의 안보적 중요성을 재차 명확히 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몽골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나 지금의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까지 서진을 감행하여 폴란드-독일 기사단을 전멸시키고 훈족의 아틸라 이래 유럽기독교세계를 거대한 위협에 빠뜨렸다(Golden, 2021, p.180).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라첼의 이론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레벤스raum의 확보를 통해 이질적 역외세력의 개입과 침략가능성을 일소하고, 유럽문명세계의 수호를 위한 대 아시아 방파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일민족의 배타적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건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4) 직역으로 ‘생존공간’을 의미.

3. 러시아의 지정학 속 우크라이나 공간

러시아는 제정 시기인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이르러 흑해 연안의 세바스토폴, 오데사 등의 항구를 건설하였다. 이는 지중해 진출을 위해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고,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의 대규모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흑해 연안의 도시들은 소련이 건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이로서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러시아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는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은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적인 동부지역과 반대의 성향을 가진 서부지역으로 지정학적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이동민, 2022). 소련 연방 분열 후 1999년에 집권한 푸틴의 경우, 냉전시대 NATO로부터 러시아의 방패 역할을 했던 동부 유럽 국가들이 EU와 NATO에 가입하며 친서방국가가 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안보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푸틴이 주창한 ‘강한 러시아’라는 프로파간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튀르키예 등과 협력하여 강한 러시아를 만들 수 있는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동민, 2022). 우크라이나가 친러 국가가 된다면 러시아는 EU에 대해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게 되고, 흑해의 제해권 역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친러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원하였다 (Tsygankov, 2015).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영향력아래 두고 싶어했고, 이러한 푸틴의 전략에 따라 전통적으로 친러 세력이 강했던 동부는 분리주의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흑해의 제해권 장악을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지정학적 전략 하에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졌다면, 냉전 이후로는 친서방화된 동부 유럽 국가를 대신해 러시아의 방패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I. 크림전쟁 속 대영제국과 제정 러시아간 지정학적 충돌

19세기 중엽에 발발한 크림전쟁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 역내 세력 간 충돌의 첫 사례이다. 크림전쟁은 표면적으로 흑해장악을 노리는 제정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전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크림전쟁의 전후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전쟁이 단순히 제정 러시아의 남하에 위협을 받은 오스만 제국을 원조하기 위한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의 도덕적 명분으로 해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크게 2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크림전쟁의 승전국인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의 지리적 위치이다. 양 제국은 기본적으로 흑해 일대와 매우 동떨어진 대서양 연안의 서유럽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흑해 장악과 그로 인한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축소는 본질적으로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꿔 말하면, 양 제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대규모 원정대를 파견하여 큰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직접적 안보적 이익이 존재하지 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은 제정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 분쟁지역에 그 어떤 역사적 및 영토적 연고가 없다. 다음으로 제정 러시아의 남하저지를 통한 양 제국의 실질적 이익이다.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이 제정 러시아를 패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양 제국이 흑해연안과 크림반도 일대에서 얻은 영토적 및 경제적 이익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림전쟁의 결과로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은 크림반도나 흑해 연안 일대의 영토할양이나 조차지 획득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 제국이 아편전쟁이후 청(淸) 제국에 전면적 내수시장개방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제정 러시아의 내부경제에 대한 침투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양 승전국이 주로 얻은 가시적 성과는 흑해 일대의 중립화(Deinet, 2019, p.140)와 제정 러시아의 베사라비아⁵⁾ 남부할양을 통한 제정 러시아의 남하저지(Yoichi, 2018, p.104)라는 지정학적 이익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크림전쟁은 영토획득과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달리 고

5) 현 몰도바 일대.

도의 지정학적 계산을 통해 촉발된 국제적 충돌이라 볼 수 있다. 크림전쟁이 대영제국과 제정 러시아간 지정학적 충돌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적 이유는 양측이 크림반도를 포함하는 우크라이나 공간과 관련한 상이한 지정학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우크라이나 공간과 관련한 대영제국과 제정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제2제국의 해당전쟁참여는 나폴레옹 3세의 친영적인 성향과 함께 그가 외교적 핵심기조로 선택한 영불동맹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Deinet, 2019, p136)이기 때문에, 프랑스 제2제국보다는 대영제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

1. 대영제국의 지정학적 이익

먼저, 대영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크림전쟁을 감수해야하는 3가지 주요 지정학적 이익이 존재한다. 첫째, 제정 러시아의 흑해 및 지중해 진출 봉쇄이다. 당시 대영제국은 나폴레옹 전쟁(1803-15)을 승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이집트장악을 저지하고 몰타 섬을 점령하면서 지중해 해양질서의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하였다. 크림반도를 기반으로 하는 제정 러시아의 해양진출은 잠재적으로 대영제국의 지중해 패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라시아 대륙세력인 제정 러시아가 해양질서에 개입한다는 것은 전술한 영미 지정학관에서 해양세력의 패권적 우위상실을 암시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크림전쟁은 제정 러시아의 해양진출을 무산시키기 위한 예방전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영불연합군이 제정 러시아의 해군기지가 있는 세바스토폴을 함락시켜 크림전쟁을 서둘러 종결시킨 사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둘째, 흑해 연안의 오스만 제국 간 제정 러시아간 힘의 균형을 유지 시킴으로써 제정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공간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에 본격화된 제정 러시아의 남하 이전에는 오스만 제국이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의 실질적 지배자였다. 이는 몽골제국의 서진의 유산으로서 수세기 동안 크림반도를 지배한 크림한국(Crimean Khanate)이 오스만 제국의 제후국이었던 점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다. 만약 오스만 제국이 제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의 지배권을 두고 투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되찾는다면, 우크라이나 공간은 양자 간 영속적 투쟁공간으로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대영제국이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의 편에 서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제정 러시아를 패배시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셋째, 제정 러시아의 서진 저지이다. 나폴레옹 전쟁 때 제정 러시아는 반(反) 프랑스동맹의 일원으로서 파리(Paris)까지 진군한 경험이 있다. 이는 중부유럽을 아우를 수 있는 제정 러시아의 군사적 서진 가능성을 증명한 것으로서, 전통적으로 유럽 대륙을 자국의 안보완충지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영제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크림전쟁은 단순히 제정 러시아의 남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 해당 제국의 유럽대륙의 중심부 진출 의도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크림전쟁 패배 이후 제정 러시아가 아시아 방면으로 대외 진출 전략을 선회한 사실로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2. 제정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

다음으로 제정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영불연합군과 충돌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2가지 지정학적 이익이 존재한다. 첫째, 흑해 연안의 패권 장악을 통한 해양세력의 침투 가능성 저지이다. 사실 제정 러시아는 이미 18세기 말엽에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흑해 제해권 장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Sheldon-Duplaix, 2015, p.153).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륙세력인 제정 러시아의 해군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 세기 동안 역외 식민지건설을 통해 고도로 발전된 대영제국의 해군력을 제압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제정 러시아는 대양진출보다는 육지를 통한 유라시아 내륙진출이 더욱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상징되는 흑해질서장악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대영제국과 같은 보편적 개입능력을 갖춘 해양세력이 흑해를 통로로 삼아 우크라이나 공간을 통해 군사 및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간이 본래 러시아 문명의 발상지임을 고려할 때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인이

만주별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슬라브 민족의 주요터전인 동부 유럽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의 마련이다. 크림반도 일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공간과 흑해 일대의 장악은 제정 러시아에게 서쪽으로 폴란드 그리고 서남쪽으로 발칸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동부유럽 장악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집착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유럽민족주의운동의 연장선인 범(凡)슬라브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에 제정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공동으로 행동으로 옮긴 폴란드 분할에서 나타나듯이, 동부유럽지역 진출은 양 독일계 국가와의 군사 및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정 러시아는 중부유럽세력과의 완충지대 건설을 위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세 차례 분할하여 소멸시켰다(정의길, 2018, p.38). 실제로 폴란드 분할이후 제정 러시아와 양 독일계 제국과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발칸반도와 관련하여서는, 제정 러시아는 당시 해당 지역의 지배국인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고 해당 지역의 기독교도를 보호하겠다는 표면적 명분을 실현함과 동시에, 오스만 제국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지정학적 영향권을 설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발생한 두 차례의 러시아-튀르크 전쟁⁶⁾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장악은 제정 러시아가 지중해연안의 부동항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IV. 독소전쟁 속 독일 제3제국과 소련 간 지정학적 충돌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자 큰 전환점인 독소전쟁은 일반적으로 히틀러가 주창한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의 반(反) 유대 및 슬라브 사상으로 야

6) 제1차 러시아-튀르크 전쟁(1828-29), 제2차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78).

기된 비극으로 이해된다. 특히 독일 제3제국이 폴란드 침공 직전에 서명한 독소불가침조약(1939)을 파기하고 기습적으로 소련을 공격한 사실로 인해, 독소전쟁이 히틀러의 감정적 판단을 바탕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제3제국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를 상세히 고려하면, 해당 전쟁이 크림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유럽 열강 간 발생한 두 번째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소전쟁이 보여준 전례 없는 광대한 전선과 전역을 고려할 때, 독일 제3제국이 고도의 지정학적 이익추구를 위해 소련을 공격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독소전쟁이 우랄산맥과 카프카스 일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키이우(Kyiv) 공방전(1941)과 하르키우(Kharkiv) 공방전(1943)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충돌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독소전쟁은 일반적으로 히틀러의 소련 불세비즘에 대한 혐오에 따른 우발적 결정에 의한 독일 제3제국의 선제공격으로 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인 설명으로서, 해당전쟁이 내포하는 지정학적 이익고려를 배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일 제3제국이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에 전격전(Blitzkrieg)을 감행한 데에는 II장에서 전술한 독일 지정학의 레벤스raum 이론이 크게 작용하였다. 소련의 경우는 단순한 대독(對獨) 반격의지로서가 아닌 앞장에서 전술한 제정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능하다.

1. 독일 제3제국의 지정학적 이익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광대한 동부유럽을 포괄하는 독일의 레벤스raum은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거대한 배타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대한 배타적 공간은 타 문명 및 지정학적 공간에 대한 공격성이 아닌, 서쪽의 영미해양세력과 동쪽의 러시아/소련대륙세력으로부터 유럽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Gruchmann, 1987, p.151). 이와 관련하여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이를 유럽관 먼로독트린(Europäische Monroedoktrin)의 개념 속에서 대(大)공간질서(Großraumordnung)로 설명하였다(Neulen 1987, 46). 이에 더하여 독일 제3제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요하힘 폰 리벤토르프(Joachim

Von Ribbentrop가 2차 대전의 궁극적 목표가 적성국의 절멸이 아닌 영미와 소련과 구별된 유럽의 배타적 이익구역(Interessensphäre)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Gruchmann, 1962, p.12). 그리고 이러한 유럽의 대공간 질서의 동부지역핵심이 바로 우크라이나 공간이다. 독일 제3제국의 지정학 전략 속에서 우크라이나 공간장악은 소련으로 상징되는 아시아 대륙세력의 공세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된다. 실제로 바르바로사 작전(Operation Barbarossa)당시 히틀러가 우크라이나일대 장악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었다(Franc, 2022, p.43). 이를 통해 독일 제3제국이 얻는 전략적 이익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에 대한 지배권 공고화는 중동부유럽의 레벤스라움의 경계를 확장하고 소련과의 군사적 및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 공간을 포함한 레벤스라움의 존재는 독일민족을 위한 중동부유럽의 정치경제적 안정화를 의미하면서, 독일제 국가가 위치한 중부유럽의 중심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라첼과 하우스호퍼의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독일 제3제국의 우크라이나 공간장악은 소련의 유라시아 중심부 장악을 저지하여 양측 간 유라시아 대륙 내 세력균형유지에 이바지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우스호퍼는 매킨더의 Heartland 이론을 수용하여 유라시아 중심부를 겨냥하는 레벤스라움의 확대를 주장하였다(Flint & Taylor, 2018, p.4). 하우스호퍼에 따르면, 독일 제3제국과 소련은 같은 대륙세력으로서 공존하면서, 궁극적으로 영미해양세력을 공동으로 견제해야한다(Ebeling, 1994, p.101).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서 독일 제3제국은 유라시아의 징검다리 지역인 우크라이나 공간일대를 선제적으로 장악하여 동부유럽 내 소련과의 지정학적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장악을 발판으로 한 카프카스 방면 진출이다. 이는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잠재적으로 소련의 시베리아지역까지 전략적 목표로 두었다는 점(Bishop & Jordan, 2012, p.217)을 통해 부분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제3제국을 위한 영토 확장의 의미보다는 카프카스일대의 풍부한 자원의 확보측면으로 이해되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독일 제3제국은 독소전쟁이 시작된 이래 석유와 같은 광대한 부존자원의 확보에 매우 집착하였다(정의길, 2018, p.170).

2. 소련의 지정학적 이익

소련은 유라시아에 걸친 거대한 제정 러시아의 영토를 계승한 사실상 불세비즘의 탈을 쓴 보편제국으로서, 비단 유럽대륙 뿐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 및 극동 아시아 지역과 같은 다양한 공간에 지정학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방면으로의 남하가 대영제국과 일본제국에 의해 저지된 영향⁷⁾으로 인해, 소련은 역사 및 문화적 연결고리가 강한 동부유럽지역에 지정학적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정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우크라이나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 이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소련에게 우크라이나 공간장악은 중/서부 유럽세력의 군사 및 자본주의적 침투를 막기 위한 양도 불가한 전초기지이다. 이는 먼저 중세시대에 우크라이나 공간을 점유한 폴란드가 모스크바로 진격한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다. 또한 독소전쟁에서 독일국방군이 우크라이나 장악을 발판으로 스탈린그라드와 모스크바진출을 시도하였다. 이 2가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소련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공간지배의 상실은 모스크바를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시키는 거대한 불안요소이다. 따라서 독소전쟁에서 보여준 소련의 사생결단은 우크라이나 공간을 재탈환하여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해 느끼는 안보위협과 연관지어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장악은 소련이 동부유럽 내 지정학적 영향권의 경계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장에서 진술한 폴란드 분할에서 드러나듯이, 제정 러시아의 동부유럽 내 지정학적 영향권 설정은 공세적 의미보다는 방어적 의미가 크다. 소련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히틀러가 갑작스럽게 독소불가침조약을 제안했을 때, 스탈린이 흔쾌히 수용한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소련이 우크라이나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 소련의 범 슬라브 세계의 맹주로서 동부유럽에서 영향권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즉, 러시아 문명의 발상지인 우크라이나 공간 장악 실패는 동부 및 동남부유럽에 있는 슬라브 민족을 통솔

7) 러시아 혁명이전에 대영제국과의 그레이트게임(Great Game)과 일본제국과의 러일전쟁패배로 인해, 제정 러시아의 인도 및 극동방면으로의 남하가 사실상 봉쇄되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약화시킨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 공간 상실은 동부유럽과 소련사이의 지정학적 월경지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V. 결론

우크라이나 공간은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명교차로임과 동시에 충돌의 창구로 기능하였다. 이는 해당공간이 그만큼 큰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분석한 크림전쟁과 독소전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패권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진영 간 러시아간 대립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랜 역사적 맥락을 가진 지정학적 투쟁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당 분쟁해결을 바라보는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크림전쟁과 독소전쟁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둔 지정학적 충돌을 고찰해보면, 오늘날에 주는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분쟁은 강대국간 만성적 패권충돌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근대 이후 해당 공간을 토대로 하는 강력한 국가 혹은 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탓이 크다. 실제로 키예프 공국이 몽골제국에 의해 폐망한 이후, 우크라이나 공간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제정 러시아간의 각축장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서세동점 시기 때 청나라와 조선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공간을 유럽 역내 강대국의 안보이익관철을 위한 뒷마당으로 전락시켰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공간에 강력한 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해당 공간을 중립적인 완충지대로 설정한 역내안보체제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절대적으로 볼 때 약한 국가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 공간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강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18세기 이후로 우크라이나 자체가 친러적인 성향의 동부와 반대의 성향인 서부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현대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강력한 국가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둘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충돌은 양 당사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남긴다. II장에서 전술했듯이, 크림전쟁의 승전국인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2제국이 얻은 영토 및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막대한 군사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전쟁에서 프랑스 제2제국은 무려 9500명의 군사를 잃었다(Deinet, 2019, p.139). 이는 제2차 아편전쟁에서 투입한 프랑스 군 병력이 6000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하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군사적 손실이다. 그리고 독소전쟁은 430만에 달하는 독일 국방군 전사자와 1500만 명에 달하는 소련의 인적 손실을 일으켰다(남도현, 2018, p.67).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 제3제국의 패망을 초래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과 러시아 역시 뚜렷한 이득이 없이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진행되는 양상과 연관지어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공간을 둘러싼 충돌의 근저에는 자의적으로 공간을 영향권으로 나누는 배타적 지정학관간 충돌이 존재한다. III장과 IV장에서 전술한 영미지정학과 독일지정학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불가피한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이를 배타적 영향권확장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독일의 레벤스raum 이론은 같은 대륙세력인 소련을 아시아 세력으로 분류하고 경계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정학관은 강대국간 상호공존 및 상호이익존중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첨예한 갈등도 포용성이 결여된 전략적 사고 간 충돌의 결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후속 주제로서 우크라이나 공간을 넘어 다른 지역 혹은 대륙의 유사한 지정학적 충돌사례를 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충돌의 역사성이 심층적으로 부각되고 각종 국제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제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정의길, (2018). *지정학의 포로들*. 서울: 한겨레출판사.
- Bernard, Nicolas. (2013). *La guerre germano-soviétique*. Paris: Tallandier.
- Bishop, Chris & Jordan David 저. 박수민 역. (2012). *제3 제국*.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2.
- Deinet, Klaus. (2019). *Napoleon III: Frankreichs Weg in die Moderne*. Stuttgart: Kohlhammer.
- Ebeling, Frank. (1994). *Geopolitik: Karl Haushofer und seine Raumwissenschaft 1919-1945*. Köln: Akademischer Verlag.
- Encel, Frédéric. (2009). *Comprendre la géopolitique*. Paris: Éditions du Seuil.
- Flint, Clint & Taylor, Peter J. (2018). *Political Geography: World-Economy, Nations-State and Locality*. London: Routledge.
- Golden, Peter R. 저. 이주엽 역. (2021). *중앙아시아사*. 서울: 책과 함께 2021.
- Gouttmanm, Alain. (2006). *Guerre de Crimée*. Paris: Tempus.
- Gruchmann, Lothar. (1962). *Nationalsozialistische Großraumordnung: die Konstruktion einer deutschen Monroe Doktrin*.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Kaplan, Robert D. 저. 이순호 역. (2017). *지리의 복수: 지리는 세계 각국에 어떤 운명을 부여하는가?*. 서울: 미지북스.
- Lebedynsky, Iaroslav. (2019). *Ukraine: une histoire en question*. Paris: L'Hamattan.
- Neulen, Hans Werner. (1987). *Europa und das 3. Reich: Einigungsbestrebungen im deutschen Machtbereich 1939-45*. München; Verlag Universitas.
- Singer, J. D., & Small, M. (1972). *The wages of war, 1816-1965: a statistical handbook*. NewYork: John Wiley.
- Waltz, K. (2018).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Columbia University Press.
- Yoichi, Takahashi 저. 김정환 역. (2018). *전쟁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정학*.

서울: 시그마 북스.

- 남도현. (2018). 독소전쟁의 문을 열다. *국방과 기술* 제473호, 66-75.
- 백철현. (2020). 독소전쟁의 기원과 쟁점. *현대사상* 제23호, 81-101.
- 이정하. (2016). 크림전쟁 직후 러시아 제국의 캅카스 경략. *사총* 87, pp 245-275.
- 이동민. (2022).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분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 *문화역사지리*, 34(3), 67-87.
- Alexandre Sheldon-Duplaix. (2015). “La Russie, la flotte de la mer noire et l’Otan,” *Stratégique* 2015/2 No. 109, pp. 153-167.
- Claude Franc, Claude .(2022). “Campagnes allemandes et sovietiques en Ukraine pend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Revue Défense Nationale* No. 848, 41-49.
- Tsygankov, A. (2015). Vladimir Putin's last stand: the sources of Russia's Ukraine policy. *Post-Soviet Affairs*, 31(4), 279-303.